

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

Factor Affecting Psychological Well-Being in Nursing Students

강 미 경¹
청운대학교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.

Kang, Mi Kyung¹
Associate Professor, Department of Nursing,
Chungwoon University

요약

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신체화 증상, 학업 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양적 조사연구이다. 자료수집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까지 259명의 간호 대학생들로부터 수집된 구조화 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. 수집된 자료는 SPSS/WIN 22.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빈도와 백분율, 평균과 표준편차, t-test, ANOVA, Pearson's correlation,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. 심리적 안녕감은 신체화 증상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($r=-.435, p<.000$)를 보였고, 학업탄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($r=.773, p<.000$)를 보였다. 심리적 안녕감의 예측 요인으로는 신체화증상($\beta=-4.745, p<.000$)과 학업탄력성($\beta=16.746, p<.000$)으로 나타났으며, 모형의 설명력은 66.8%로 나타났다.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, 간호 대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체적 증상과 학업 탄력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효과적인 심리적 안녕감 증진 프로그램을 제언한다.

I. 서론

1.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

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신체화증상, 학업탄력성, 심리적안녕감의 관계를 확인하고, 간호대학생의 신체화증상과 학업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었다.

II. 본론

1. 연구방법

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신체화증상과 학업탄력성, 심리적 안녕감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. 자료 수집은 대전, 충남, 충북에 소재 한 대학에서 편의의 추출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는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8년 1월 20일 까지 수집하였고,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 듣고 설문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구조화 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. 수집된 275부의 설문지 중, 최종 259부를 분석하였다. 신체화증상은 간이 정신 진단 검사(SCL-90-R)중 함자영(2005)이 신체화 증상만을 문항으로 한 도구를 사용하였고, 학업탄력성은 김누리(2008)가 개발한 학업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, 심리적 안녕감은 Ryff(1989)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(Psychological Well-Being Scale: PWBS)를 김명소 등(2001)이 요인 분

석한 한국판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였다. 자료는 SPSS/WIN 22.0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, 평균과 표준편차, t-test, ANOVA, Pearson's correlation,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.

III. 연구 결과

연구 결과 대상자의 신체화 증상은 Likert 5점 척도에 평균 1.87±0.80점, 학업탄력성은 Likert 5점 척도에 평균 3.69±0.55점, 심리적 안녕감은 Likert 5점 척도에 평균 3.34±0.46점이었다(Table 1).

〈Table 1〉 Descriptive Statistics Related Variables of Psychological Well-being in Nursing Students (N=259)

Variables	n	M ±SD
Somatic symptoms	12	1.87±0.80
Academic Realliance	29	3.69±0.55
Psychological Well-being	46	3.34±0.46

심리적 안녕감은 신체화 증상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($r=-.435, p<.000$)를 보였고, 학업탄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($r=.773, p<.000$)를 보였다(Table 2).

〈Table 2〉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of Psychological Well-being(N=259)

	1	2	3
	γ	γ	γ
1. Somatic symptoms	1		
2. Academic Resilience	-.299**(.000)	1	
3. Psychological Well-being	-.435**(.000)	.773**(.000)	1

*p<.05, ** p<.01

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($F=165.60$, $p<.001$).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업탄력성($\beta=.69$, $p<.001$), 신체화증상($\beta=-.20$, $p<.001$)로 구성되었으며 66.8%의 설명력을 보였다(Table 3).

〈Table 3〉 Factor Affecting Psychological Well-being of Nursing students (N=259)

Variables	B	SE	β	t	p
Perceived health status	-8.460	1.74	-.282	-4.856	.000
Major satisfaction	9.367	2.01	.270	4.655	.000
Adj. R^2 = .183, F = 21.666, p < .000					
Perceived health status	-.312	1.29	-.010	-.241	.810
Major satisfaction	2.613	1.39	.075	1.886	.060
Somatic Symptoms	-.450	.09	-.204	-4.745	.000
Academic Resilience	.901	.05	.686	16.746	.000
Adj. R^2 = .643, F = 165.60, p < .000					

IV. 논의

간호대학생은 신체화 증상이 낮고 학업 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.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공 만족도, 주관적 건강 및 신체화 증상, 학업 탄력성이 있었다. 향후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를 확인하기 위한 전국 단위 간호대학생을 통한 반복 조사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. 또한,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 요인을 포함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된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.

■ 참고 문헌 ■

- [1] 진종임, 김남초 “간호대학생의 투지(Grit), 학업탄력성 및 심리적 안녕감”, 한국간호교육학회지, 제23권 2호, pp 175-183, 2017.
- [2] 전원희, 차경숙, 이기령. “간호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

영향 요인”, 한국간호교육학회지, 제21권 제2호, pp 276-284, 2015.

- [3] 조금이, 박현숙. “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”,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, 제12권 1호, pp 160-169, 2011.
- [4] 김지혜, 전해옥. “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영향 요인:심리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”, 한국정신간호학회지, 제 25권 2호, pp 123-132, 2016.
- [5] 신선화. “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위안과 자기공격의 매개효과”,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호, 596-606, 2018.